

인도 부바네스와르, 아메다바드 지역현황 및 선교적 조망

IFR 4기 훈련팀

목 차

제 1 장 India Field Research 개요	
.....	1
제 2 장 4기 training team 구성	
.....	6
제 3 장 일정 보고	
.....	8
제 4 장 지역 보고서	
.....	10

제 1 장

India Field Research

개 요

IFR 4기 주제말씀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
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
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20절

1. I.F.R. 이란?

India Field Research는 인도 각 지역과 종족, 사회 전반에 걸친 현장 조사를 통해 인도과 인도 민족의 실체성을 알리고 인도 복음화에 대한 실질적 전략을 제시하며 아울러 단기 미션팀 활동을 통해 현지 선교사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선교적 사명에 헌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인 학생 모임이다.

인도 땅을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정탐하며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 선교적인 방향성을 살피며, 그 땅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 땅에 대해서 알린다.

2. I.F.R.의 목표

- 팀원 모두가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로 서게 한다.
- 인도땅을 향한 하나님의 필요와 관심을 알고, 사람들에게 그 땅이 어떠한

알린다.

- 모든 팀원들이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서게 한다.

3. I.F.R.의 역사

- 2002년 김군오 교수님 중심으로 1기 훈련 팀 6명이 모집
- 2002년 1학기 여름방학에 문화 사역팀(챔버, 대전 찬양팀)과 연합및 리서치
- 2002년 2학기 미션팀 구성 (MIC, PITCHPIPE)
- 2002년 2학기 겨울방학 미션팀(MIP) 태국과 인도에서 문화사역
- 2003년 1학기 IFR 2기 훈련팀 4명 모집
- 2003년 1학기 여름방학에 7명이 인도 북부 안사리 종족 리서치
- 2003년 2학기 IFR 3기 훈련팀 2명 , 비전팀 2명 모집
- 2003년 2학기 겨울방학에 4명이 켈커타 지역 연구 및 오리사주 문다 종족 연구

4. I.F.R.의 훈련 과정

(1) 학기 중 훈련

10주 간의 훈련을 학기 중에 실시한다. 훈련 내용으로 매주 목요일 특강 시간을 통해 기본적인 영성 훈련을 하고 이외에 리서치 대상 지역과 종족에 대한 사전 문헌 조사, 조사표 작성, 리서치 실습을 한다. 매일 밤 10시 기도회를 하며 말씀 읽기와 묵상, 지체들간의 교제를 나눈다.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소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을 익히고 인도에 대해서 알며 우리 안의 연합을 이룬다.

(2) 방학 중 합숙 훈련

방학 후 10일 간의 합숙 훈련 시간을 가진다. 기본적인 훈련 이외에 인도과

선교에 대한 강의를 듣고, 팀 내의 공동체 훈련 등을 통해 리서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 아침 묵상과 10시 기도회를 동일하게 하며, 공동체의 역할들을 서로 연습하고 필드의 상황들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며, 핸드 북을 작성한다.

(3) 필드 리서치

실제 조사 지역에 들어가서 준비한 조사표를 바탕으로 현지 인터뷰와 문헌 자료들을 수집하고 조사한다. 또한 말씀 선포와 워십댄스, 찬양, 대적기도 등을 통해 그 땅의 악한 영을 묶는 영적전쟁을 수행한다.

(4) 보고서 작성

리서치 후 정탐의 열매인 보고서와 동원자료를 만든다. 각 팀, 조, 부 보고서와 종족 보고서, 선교 전략 보고서를 만들고 선교 동원을 위해 사진 프리젠테이션, 비디오 자료들을 만들며 사진 전시회와 동원 보고 예배를 준비한다.

(5) 선교 동원

작성된 보고서와 간증문 등을 각종 대중 매체를 통하여 발표하고 각 교회와 단체에 가서 준비한 미디어 자료와 간증 등을 통해 동원사역을 담당한다.

(6) 제자 양육 체계

인도 현지에 다녀온 훈련생들이 현장에 다녀온 것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더욱 더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소그룹 성경공부와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말씀으로 양육한다.

5. I.F.R의 비전

- 훈련과 리서치를 통해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를 양성한다.
- 영성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 Field Researcher, 21세기를 이끌어갈 Christian Leader를 양성한다.
- 학생의 자발적 선교체계를 확립하고 한동대학교 선교 모임들의 연합을 통해 한동 선교 센터로 발전시킨다.
- 인도 선교사와 연구자, 관심자들을 연결하는 사이버 커뮤니티를 구축한다.
- 한국 교계에 새로운 단기 선교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현지의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드리고 그 땅의 필요와 하나님의 관심을 발견한다.
- 사람들이 인도 땅을 알고 잊혀진 땅과 종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고, 중보 할 수 있게끔 돕는다.

6. 기존 단기선교와의 차이점

단기 선교에서 중요한 것은 충분한 사전 준비와 활동 결과의 철저한 사후 관리이다. 기존 한국의 단기 선교 팀은 사전 준비가 부족하고 활동의 결과를 정리, 보고하지 않아 선교 자료나 정보의 축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적잖이 받아왔다.

한동대 I.F.R은 이러한 기존 단기선교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팀을 구성한다.

- 팀을 조기에 구성하여 충분한 기도와 훈련, 연합의 기간을 갖는다.
- 대학의 선교 모임으로서 선교활동에 학문적인 접근법을 활용한다.
- 사전에 지역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이해의 시간을 가진다.
- 소수의 조별 활동을 원칙으로 조별로 현지 안내인과 사역자와 연합하여 지역학적 연구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 충실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현지에서의 활동뿐 아니라 활동전의 준비과정과 리서치 후에 보고서 작성과 동원활동을 더욱 중시한다.

제 2 장

4기 Training team 구성

1학기 중 훈련 운영체제

담당교수 : 김군오 교수님

담당간사 : 정난영 (국제어문학부 98)

디렉터 : 최인섭 (생명식품과학부 03)

섬김이 : 최 훈 (생명식품과학부 03)

훈련생 : 이경하 (법학부 02)

김요셉 (생명식품과학부 03)

김지원 (공간시스템공학부 03)

도 란 (국제어문학부 03)

1. 필드에서 역할에 따라

디렉터 : 최인섭 (생명식품공학부 03)

기 장 : 이경하 (법학부 02)

예 배 부 : 김요셉 (생명식품과학부 03)

찬양인도 : 최인섭 (생명식품과학부 03)

문 서 부 : 최인섭 (생명식품과학부 03) 이경하 (법학부 02)

총 무 부 : 도 란 (국제어문학부 03)

미디어부 : 김지원 (공간시스템공학부 03) 구선미 (생명식품과학부 97)

섬김이부 : 김수진 (언론정보문화학부 99) 구선미 (생명식품과학부 97)

제 3 장

일 정 보 고

IFR 4기 전체일정 개략

1. 조직 및 훈련

개강예배

2004-3-11

IFR보고동원예배	2004-3-18
인터뷰	2004-3-21 ~ 2004-3-25
OT,1차캠프	2004-3-26~2004-3-27
1차 리서치	2004-4-24
2차 리서치	안 함
러브피스트	2004-6-5
파송예배	2004-6-17
10일합숙	2004-6-23 ~ 2004-7-3
리서치	2004-7-5 ~ 2004-7-28
보고서 합숙	2004-7-31~2004-8-7

2. 리서치

부바네스와르	2004-7-11 ~ 2004-7-15
아메다바드	2004-7-17 ~ 2004-7-20

3. 귀국 및 보고서 합숙

귀국	2004-07-28
보고서 합숙	2004-07-31 ~ 2004-8-7

제 4 장

지역 보고서

I 개요

보고서 목적

종교의 나라 인도. 힌두교가 80%에 다다른 엄청난 숫자이다. 힌두교 특히 극힌두파들은(정치계 BJP당 포함) 인도를 힌두교로 통일하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종교가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욱 탄압을 가하며 이로 말미암아 종교 간의 분쟁이 많다. 이번 기수가 방문한 오리사주와 구자라트주는 특히 기독교 핍박지역으로 크리스천에 대한 압박과 불이익을 조성한다. 그 주에서는 개종금지법을 통과시켰고 더욱이 구자라트주는 자기들의 땅을 세계에서 힌두를 보고 느끼게 하기 위한 관광지로 발전시키려 계획,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수는 이러한 땅에 나아가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듣고 그분의 주권됨을 선포하고 그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과 그 땅의 영적,사회적 상황을 알리려 한다.

1. 조사 개요

(1) 조사 지역

부바네스와르(오리사주) , 아메다바드(구자라트주)

(2) 조사기간

부바네스와르	2004-7-11 ~ 2004-7-15
아메다바드	2004-7-17 ~ 2004-7-20

(3) 조사 방법

리서치 기간에는 매일 제비뽑기를 통해서 2~3명씩 조를 이루었다. 그 도시 지도를 펴고 리서치할 만한 지역들을 여러 등분으로 나누었다. 점심 시간에는 다같이 모여서 전략회의를 다시 해서 그날 리서치 내용을 재점검했다. 점심시간에는 너무 기온이 높아서 리서치 하기에 너무 더웠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재점검시간으로 이용하였다. 인터뷰를 할 때는 영어에 능숙한 사람이 질문을 하고 나머지 멤버들은 적으면서 다음 질문 내용을 준비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우리가 궁금했던 점들과 보고서 내용에 맞추어 질문하였다.

II 부바네스와르 도시 지역 연구

1. 도시소개와 개요

- 고대의 도시 부바네스와르. 성곽,요새로 라자스탄이 유명하듯이 부바네스와르는 600개이상의 수 세기전의 템플건축양식으로 유명하다. 진정한 힌두의 종교 건축의 보루는 아마도 부바네스와르, 이 한 도시에서만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이 수 많은 템플들은 인도의 훌륭한 유산을 상기시켜주기에 충분하다. Devadasis나 성전의 거룩한 여종들의 규칙적인 춤이나 의식,제사 그리고 이들의 연주리듬은 이 템플 문화 속에 깊이 베여있다. 부바네스와르의 템플은 힌두의 전형적인 형태로 세워진 것들이다.

이 도시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다. 기원전 3세기에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이 불교로 귀의했던 것은 카링가 왕국을 정복한 후에 이 땅에서 불교의 수도 승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전해지며 기원전 2세기에는 자이나교 고행자가 도시의 서쪽에서 수행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 부바네스와르는 예로부터 종교적 성지였다. 그 후 10세기에는 강가 왕조의 수도가 되었으며 15세기까지 수많은 사원들이 세워져 바라나시와 함께 성지로서 도시의 위신이 점점 높아졌다. 그

러나 그러한 번영도 이슬람교도의 침입으로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그런 역사의 무게가 그다지 느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오릿사주가 지닌 풍부한 녹음이다. 이 도시는 오릿사의 주도로 40만명이 넘는 인구를 지닌 큰 도시이지만 7천 개나 되는 사원이 있었던 성지의 잔영이 남아 있는 곳은 구시가지 일대뿐이다. 1949년에 주도로 결정되고 나서 만들어진 역의 서쪽 신시가지는 깨끗하게 구획된 지역에 빌딩이 늘어서 있어서 구시가지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관광의 중심이 되는 것은 역시 구시가지로 인도의 다른 많은 도시들처럼 전형적인 사원 마을의 분위기가 감돈다

2. 개괄적 정보

- (1) 크기 : 65.03 sq km.
- (2) 고도 : 45 metres (146 ft.)
- (3) 기후 (deg C): Summer – Max.38, Min.27.1
winter – Max.28.2, Min.15.2.
- (4) 우(雨)기 : Mid June–September 60 inches (152 cms).
- (5) 사용하는 언어 : Oriya, Bengali, Hindi, English etc.
- (6) 방문하기 좋은 시기 : October to March
- (7)지도



(8) 가는 방법

(a)비행기 - Indian Airlines and other private airlines connect

Bhubaneshwar with daily flights from Delhi via Raipur and Calcutta. There are also more frequent flights to Hyderabad and Nagpur.

(b)기차 - Bhubaneshwar is an important stop for all trains on the broad guage line from Calcutta to Chennai. Regular train services connect Bhubaneshwar with Puri, Sikandrabad, Tirupati, Sambhalpur, New Delhi, Mumbai, Kochi and Thiruvananthapuram.

(c)버스 - National Highway No.5,linking Calcutta and Chennai,connects Bhubaneshwar with many important towns and cities in the country. The Orissa state Road Transport Corporation buses and other private buses operate daily between Bhubaneshwar and the neighboring towns and cities.

(9)통계치

**TABLE FPT-1 : TOTAL POPULATION, SCHEDULED CASTE AND SCHEDULED TRIBE
POPULATION BY SEX AND PLACE OF RESIDENCE - STATE/DISTRICT/POLICE STATION/TOWN : 2001**

Location code number	State/District/Police Station/Town	Place of residence	Sex	Total Population	Scheduled Castes	Scheduled Tribes
1	2	3	4	5	6	7
0013	Balugaon	Urban	Persons	22,030	5,070	182
			Males	12,301	2,665	101
			Females	9,729	2,405	81
0014	Banapur	Total	Persons	97,212	10,999	7,473
			Males	48,000	5,463	3,766
			Females	49,212	5,536	3,707
		Rural	Persons	80,738	9,236	7,277
			Males	39,646	4,554	3,643
			Females	41,092	4,682	3,634
		Urban	Persons	16,474	1,763	196
			Males	8,354	909	123
			Females	8,120	854	73
0015	Bhubaneswar (M Corp.)	Total	Persons	648,032	51,675	28,876
			Males	360,739	28,009	15,704
			Females	287,293	23,666	13,172
		Rural	Persons	0	0	0
			Males	0	0	0
			Females	0	0	0
		Urban	Persons	648,032	51,675	28,876
			Males	360,739	28,009	15,704
			Females	287,293	23,666	13,172
41701000	Khordha (M)	Urban	Persons	39,054	4,939	1,031
			Males	20,381	2,524	548
			Females	18,673	2,415	483
41702000	Bhubaneswar (M Corp.+OG)	Urban	Persons	658,220	53,677	29,594
			Males	366,134	29,046	16,071
			Females	292,086	24,631	13,523
	Bhubaneswar (M Corp.)	Urban	Persons	648,032	51,675	28,876
			Males	360,739	28,009	15,704
			Females	287,293	23,666	13,172
	Industrial and Colony Area (OG) E.Block No. 1032-1105	Urban	Persons	1,852	345	651
			Males	946	187	326
			Females	906	158	325
	Industrial and Colony Area (OG) E.Block No. 1088	Urban	Persons	739	183	0
			Males	360	87	0
			Females	379	96	0

POPULATION, GROWTH RATE AND SEX RATIO - 2001 CENSUS								
Name of State/District	Total Rural Urban	No. of Households	Total Population			Growth Rate 2001		Sex Ratio
			Persons	Males	Females	Number	%	
1	2	3	4	5	6	7	8	9
ORISSA	Total	7,738,065	36,804,660	18,660,570	18,144,090	5,144,924	16.25	972
	Rural	6,618,547	31,287,422	15,748,970	15,538,452	3,862,669	14.08	987
	Urban	1,119,518	5,517,238	2,911,600	2,605,638	1,282,255	30.28	895
Bargarh *	Total	296,514	1,346,336	681,500	664,836	139,164	11.53	976
	Rural	276,136	1,242,795	627,986	614,809	116,170	10.31	979
	Urban	20,378	103,541	53,514	50,027	22,994	28.55	935
Jharsuguda *	Total	106,839	509,716	261,941	247,775	67,562	15.28	946
	Rural	69,269	323,831	163,985	159,846	41,005	14.50	975
	Urban	37,570	185,885	97,956	87,929	26,557	16.67	898
Sambalpur	Total	202,247	935,613	475,122	460,491	122,024	15.00	969
	Rural	149,634	681,835	343,182	338,653	73,704	12.12	987
	Urban	52,613	253,778	131,940	121,838	48,320	23.52	923
Debagarh *	Total	58,324	274,108	138,408	135,700	39,870	17.02	980
	Rural	53,983	254,012	127,890	126,122	37,049	17.08	986
	Urban	4,341	20,096	10,518	9,578	2,821	16.33	911
Sundargarh	Total	394,060	1,830,673	935,601	895,072	257,056	16.34	957
	Rural	262,626	1,201,479	602,578	598,901	152,867	14.58	994
	Urban	131,434	629,194	333,023	296,171	104,189	19.85	889
Kendujhar	Total	326,784	1,561,990	790,036	771,954	224,964	16.83	977
	Rural	283,092	1,348,967	678,455	670,512	178,815	15.28	988
	Urban	43,692	213,023	111,581	101,442	46,149	27.65	909
Mayurbhanj	Total	472,123	2,223,456	1,123,200	1,100,256	338,876	17.98	980
	Rural	440,680	2,067,756	1,041,057	1,026,699	299,425	16.93	986
	Urban	31,443	155,700	82,143	73,557	39,451	33.94	895
Balেশwar	Total	403,653	2,024,508	1,036,511	987,997	327,925	19.33	953
	Rural	360,533	1,804,140	921,740	882,400	261,709	16.97	957
	Urban	43,120	220,368	114,771	105,597	66,216	42.96	920
Bhadrak *	Total	238,888	1,333,749	675,642	658,107	227,915	20.61	974
	Rural	215,142	1,192,678	602,681	589,997	196,685	19.75	979
	Urban	23,746	141,071	72,961	68,110	31,230	28.43	934
Kendrapara *	Total	271,475	1,302,005	646,438	655,567	152,504	13.27	1014
	Rural	258,034	1,227,868	608,380	619,488	141,602	13.04	1018
	Urban	13,441	74,137	38,058	36,079	10,902	17.24	948
Jagatsinghapur *	Total	221,783	1,057,629	538,881	518,748	123,840	13.26	963
	Rural	198,352	953,180	480,442	472,738	95,483	11.13	984
	Urban	23,431	104,449	58,439	46,010	28,357	37.27	787

Name of State/District	Total Rural Urban	No. of Households	Total Population			Growth Rate 1991-2001		Sex Ratio
			Persons	Males	Females	Number	%	
1	2	3	4	5	6	7	8	9
Cuttack	Total	466,326	2,341,094	1,207,781	1,133,313	287,902	14.02	938
	Rural	344,349	1,699,964	865,591	834,373	132,633	8.46	964
	Urban	121,977	641,130	342,190	298,940	155,269	31.96	874
Jajapur *	Total	327,129	1,624,341	823,747	800,594	238,164	17.18	972
	Rural	313,557	1,551,361	785,443	765,918	218,615	16.40	975
	Urban	13,572	72,980	38,304	34,676	19,549	36.59	905
Dhenkanal	Total	222,023	1,066,878	544,001	522,877	119,008	12.56	961
	Rural	203,537	973,964	495,078	478,886	104,206	11.98	967
	Urban	18,486	92,914	48,923	43,991	14,802	18.95	899
Anugul *	Total	230,711	1,140,003	587,234	552,769	178,966	18.62	941
	Rural	196,825	981,587	501,368	480,219	130,673	15.36	958
	Urban	33,886	158,416	85,866	72,550	48,293	43.85	845
Nayagarh *	Total	178,231	864,516	446,177	418,339	81,869	10.46	938
	Rural	171,116	827,450	426,794	400,656	71,047	9.39	939
	Urban	7,115	37,066	19,383	17,683	10,822	41.24	912
Khordha *	Total	374,338	1,877,395	986,886	890,509	375,381	24.99	902
	Rural	200,543	1,071,689	543,490	528,199	85,956	8.72	972
	Urban	173,795	805,706	443,396	362,310	289,425	56.06	817
Puri	Total	287,463	1,502,682	763,389	739,293	197,317	15.12	968
	Rural	247,682	1,298,654	657,199	641,455	156,768	13.73	976
	Urban	39,781	204,028	106,190	97,838	40,549	24.80	921
Ganjam	Total	644,919	3,160,635	1,581,986	1,578,649	456,579	16.88	998
	Rural	538,530	2,604,276	1,295,086	1,309,190	323,973	14.21	1011
	Urban	106,389	556,359	286,900	269,459	132,606	31.29	939
Gajapati *	Total	111,405	518,837	255,423	263,414	64,129	14.10	1031
	Rural	100,306	465,949	228,862	237,087	58,010	14.22	1036
	Urban	11,099	52,888	26,561	26,327	6,119	13.08	991
Kandhamal	Total	145,676	648,201	322,799	325,402	101,920	18.66	1008
	Rural	136,265	604,107	299,929	304,178	93,488	18.31	1014
	Urban	9,411	44,094	22,870	21,224	8,432	23.64	928
Baudh *	Total	83,245	373,372	188,155	185,217	55,750	17.55	984
	Rural	79,653	355,347	178,849	176,498	53,183	17.60	987
	Urban	3,592	18,025	9,306	8,719	2,567	16.61	937
Sonapur *	Total	115,533	541,835	275,601	266,234	65,020	13.64	966
	Rural	107,292	501,767	254,805	246,962	59,782	13.53	969
	Urban	8,241	40,068	20,796	19,272	5,238	15.04	927

Name of State/District	Total Rural Urban	No. of Households	Total Population			Growth Rate 1991-2001		Sex Ratio
			Persons	Males	Females	Number	%	
1	2	3	4	5	6	7	8	9
Balangir	Total	303,385	1,337,194	673,985	663,209	106,256	8.63	984
	Rural	272,975	1,182,871	594,182	588,689	81,353	7.39	991
	Urban	30,410	154,323	79,803	74,520	24,903	19.24	934
Nuapada *	Total	122,601	530,690	264,396	266,294	61,208	13.04	1007
	Rural	116,329	500,652	249,146	251,506	56,935	12.83	1009
	Urban	6,272	30,038	15,250	14,788	4,273	16.58	970
Kalahandi	Total	320,624	1,335,494	667,526	667,968	204,591	18.09	1001
	Rural	299,942	1,235,275	615,612	619,663	182,535	17.34	1007
	Urban	20,682	100,219	51,914	48,305	22,056	28.22	930
Rayagada *	Total	190,381	831,109	409,792	421,317	117,125	16.40	1028
	Rural	165,257	715,702	351,158	364,544	91,044	14.58	1038
	Urban	25,124	115,407	58,634	56,773	26,081	29.20	968
Nabarangapur *	Total	227,026	1,025,766	515,162	510,604	179,107	21.15	991
	Rural	214,538	966,496	484,413	482,083	161,954	20.13	995
	Urban	12,488	59,270	30,749	28,521	17,153	40.73	928
Koraput	Total	284,876	1,180,637	590,743	589,894	151,060	14.67	999
	Rural	240,294	982,188	488,975	493,213	124,316	14.49	1009
	Urban	44,582	198,449	101,768	96,681	26,744	15.58	950
Malkangiri *	Total	109,483	504,198	252,507	251,691	81,872	19.39	997
	Rural	102,076	469,582	234,614	234,968	81,684	21.06	1002
	Urban	7,407	34,616	17,893	16,723	188	0.55	935

3. 기관정보

(1) State Library(월요일은 휴무)

- 책을 보는 과정이 제법 까다로운 편이다. 먼저 개인 소지품(가방등)을 보관소에 맡겨야 했다. 그리고 허가증(하얀 종이에 이름과 주소를 쓰면 관리인이 싸인을 해 준다.) 그런 후 2~4층에 진열되어 있는 책을 볼 수 있다. 1층을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열람실로 개방하고 있었다. 나머지 층에는 책장이 주로 공간을 메우고 있었지 앉는 좌석이 많지 않았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다. 1층 열람실은 꽤 찼고 다른 층에도 많이 앉아서 독서를 하거나 공부하고 있었다. 에어컨이 나오는 시설은 아니었지만 천장에는 팬이 돌고 있어서 나름대로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공계 관련 서적은 그리 많지 않았다. 생물분야 같은 경우 유전자분야의 논문서적과 환경에 관련된 서적이 많았다. 학생들이 공부할 만한 전공서적은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인문계 관련 서적은 꽤 많은 편이었다. 언어학이나 오리사 문학등이 비치 되어 있었다.

(2) State Archives(월요일은 휴무)

- 자료보관소는 State Library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같이 초대장이나 허가증이 없을 경우 관장(2층에 위치)에게로 안내된다. 그곳에서 이름, 주소, 방문 목적,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가 명시되어 있는 형식을 쓰고 1층에 있는 자료열람목록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책들의 제목을 적어서 관리인에게 준다. 그러면 그 관리인이 주문한 책을 책창고에서 그것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열람목록이 있는 방에서 읽고 반납하고 나간다.

(3) The Institution of Engineers

(4) Rama Devi Women' s Autonomous College

and Rama Devi Womes' s Junior College Bhubaneswar

- 3팀으로 나누어져서 조사했다. 오피스를 찾아가서 관장을 찾았다. 학교를 소개하는 책자를 줌. 대학을 국립학교라고 함. 우갈리 대학과 이어지는 대학이라고 함. 10%정도의 학생이 우갈리 대학으로 간다. 11학년이 있는데 3천명의 학생들이 있다. 교수는 103명. 95%는 오리사주학생. 국립학교라서 입학 시험이 없다. 여학교라서 그런지 가정 학과가 많이 발전되어 있었다. 홈사이언스라고 한다. 실험실들이 꽤 많았다. 정치교수와 철학교수를 만났는데 여성인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문제없다고 했다. 사실 문제가 많은데 인도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얘기한다.(no problem) 여성인권에 대해서 대체로 양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철학과 교수의 이야기로는 힌두신들은 유일신이 아니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어디나 있는 그런 신이라고 한다.

(5) Government Homoeopathic Medical College and Hospital

(6) Neelachal Institute of Medical Sciences

- 학생이 90명정도 교수님은 7~8명정도되고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고 학생들이 영어를 대부분 잘 했다. 방사선관리나 병원메니저등을 양성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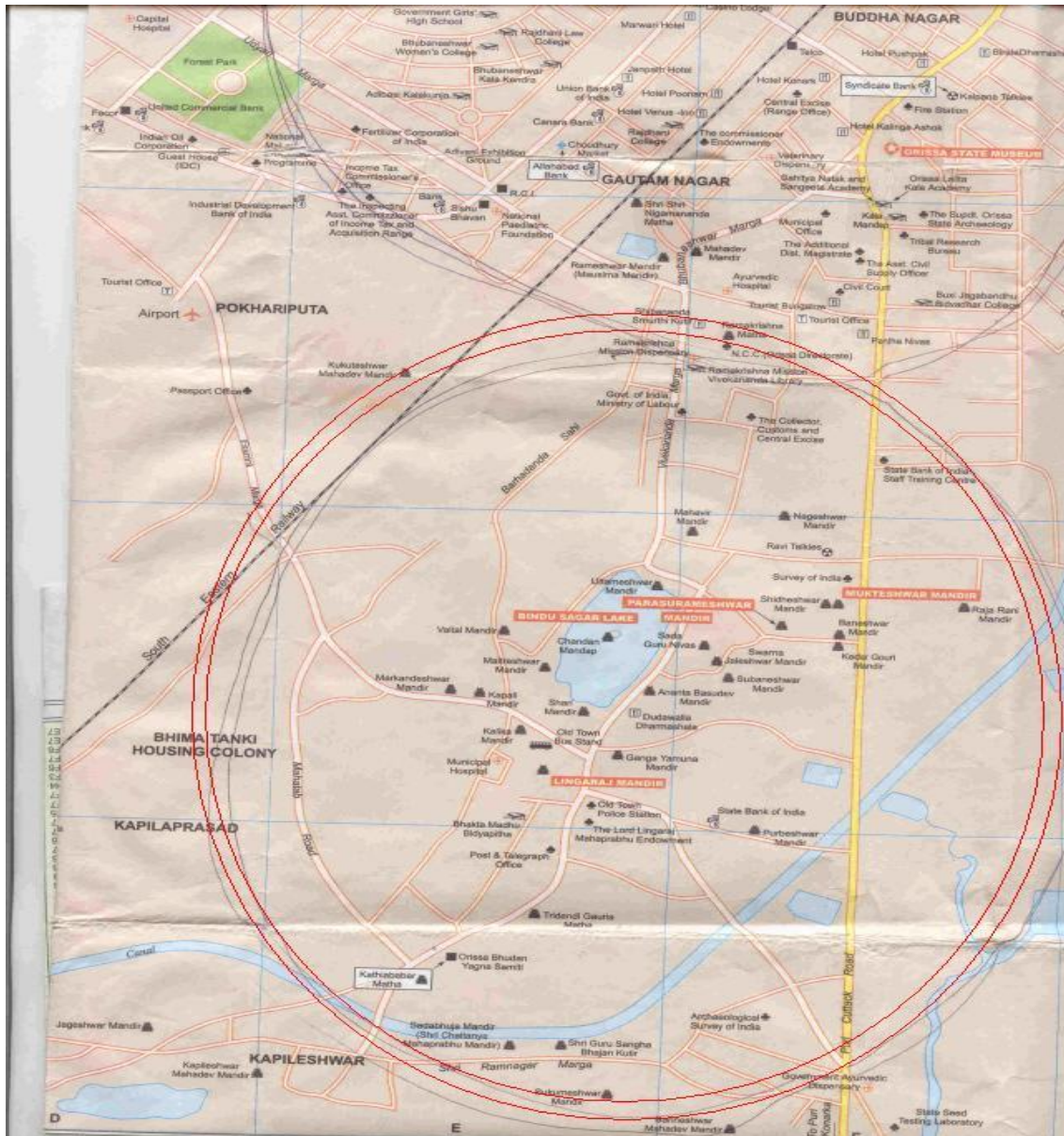
(7) Utkal University

(8)IDCO(Orissa Industri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rporation)

(9)노동조합

- 금속이나 보석 자원이 많아서 컴퓨터 칩을 개발하기에 좋다고 했다.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학이 있다. Ms 회사의 많은 사람이 인도인이라고 한다. 주로 노동조합은 임금 문제등을 다룬다.

4. 영적 상황



- 부바네스와르 도시는 특이하게 힌두템플들이 도시의 아래쪽에 집중되어 있다. 구시가지인 이 지역은 신시가지 지역보다 건물이나 환경이 부실하고 좋지 않다. Bindu Sagar Lake를 중심으로 힌두의 고대 건축양식을 볼 수 있는 큰 템플들이 많다. 제일 주된 템플은 Lingaraj Temple이다. 이 템플은 Shiva신에게 받쳐졌다. 2월~3월에 신바신을 위한 축제가 여기서 열린다. 힌두 신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고 관광객들은 다른 통로를 통해 템플의 안을 볼 수 있다. 템플들은 오랜 시간으로 약해져 있어서 골격을 세워서 지탱하고 있다. 이 곳을 방문하여 2개의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호수의 왼쪽, 다른 한 팀은 호수의 오른쪽을 땅밋기 했다. 한 팀은 여리고성을 돌듯이 7바퀴를 돌았다. 오리사주는 기독교박해주이다. 그리고 부바네스와르는 오리사주의 주도이다. 그리고 이 템플지역은 부바네스와르의 영적인

거점이다.

III 아메다바드 도시 지역 연구

(3) 인구 - 351만 5361명 (2001년도 조사)

(4) 역사 - 1411년 이슬람 교도인 토후(土侯) 아마드 샤가 성곽도시로 건설,
무굴 왕조 때는 중요한 이슬람 도시로 번창했다.

(5) Warming UP!!

- 1) 19세기 후반부터는 인도의 면공업 중심지가 되었으며 봄베이와 맞먹는 근대 공업 도시로 발전했다.
- 2)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시내에는 15~16세기에 건립된 아름다운 인도 이슬람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다.
- 3) 20세기에는 인도 민족운동 중심지의 하나가 되었으며 인도 독립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도 1915년부터 1920년 동안 이 곳에 독립운동 본부를 두었다.
- 4) 사바르마티 강변에 남아있는 간디 수도원과 간디가 독립운동의 지사를 양성하기 위해 창설했던 구자라트 대학도 이 도시의 유서 깊은 역사를 말해준다.
- 5) 사바르마티 강을 경계로 동쪽은 구시가지이고, 서쪽은 신시가지이다.
- 6) 간디나가르로 구자라트 주의 수도를 옮기기 전, 1960년부터 10년동안 잠시 구자타르 주의 수도였다.
- 7) 면공업과 교통의 허브, 상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6) 지리

전체면적은 8964.6 sq km. 사바르마티 강이 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다.
강 뒤에 있는 두개의 메인로드는 기차역을 향하고 있다.

예전에 지어졌던 성곽들은 지금은 거의 다 무너졌으나 일부 문들은 곳곳에 남아있기도 하다.

공향은 도시의 북동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다.

(7) 계절

아마다바드 도시의 계절은 구자라트 주의 계절을 거의 대부분 공유하고 있다.

겨울은 11월에 시작되어 3월 중반까지 계속된다. 그 후엔 낮은 점점 따듯해지나 밤은 아직 선선하다. 3월 중반부터 6월 중반까지는 본격적인 여름이다. 인도의 특유한 계절 몬순은 6월 중반부터 시작되어 9월 말까지 계속된다.

(8) 기후

극단적으로 덥지도 춥지도 않은 온화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

인도의 서북부는 건조, 사막기후의 특성 가지고 있음.

7월 평균 기온(18년간 평균) - 29도 (평균최고:32도, 평균최저:26도)

7월 최고, 최저 기온(18년 동안 가장 최고, 가장 최저) - 최고: 39도, 최저: 22도

7월 평균 강수량 - 29Cm (인도의 일년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린다.)

7월 평균 뇌우 일수 - 4일 (강풍이 따르고 천둥 번개 동반)

7월 평균 아침 상대 습도 - 88%

7월 평균 저녁 상대 습도 - 69%

7월 평균 바람 세기 - 9Km/h

(9) 사람들

아마다바드 시는 전체적으로 현대적이며 열려 있는 친근한 도시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한다.

전세계로 열려 있는 대도시 아마다바드는 여유로운 중산층이 대도시의 배경을 가지고 사회 생활과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0) 언어

구자라티가 주 언어이고 지역적으로 방언도 쓰인다. 도시에선 힌디어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11) 종교

이들의 주 종교는 당연히 힌두다. 그러나 다른 주보다, 다른 도시보다 훨씬 많은 이슬람교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커다란 특징이다. 이슬람교 인구의 비율은 약 5.2% 정도이며 자이나교의 비율도 큰 편이다.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분쟁은 이 지역의 미해결 과제 중의 하나이다.

(12) 정치

힌두교와 이슬람교와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2년 BJP당이 구자라트 주에서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어 갈등이 더 증폭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2004년 주 선거에서 의회당이 BJP당을 누르고 승리를 거두어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 우리가 직접 느낀 아마다바드. 그 허와 실

- (1) 인도에서도 가장 극빈층이 많다는 오리사 주를 떠나 구자라트의 중요 거점 도시인 아마다바드로 곧장 왔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 너무 많은 기대를 한 탓인지 인도의 다른 도시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도시의 모습에 약간 실망을 했었다. 그러나 처음 날, 도시를 한번 둘러보고 계속 리서치를 하면서 메트로폴리탄 시티라는 말을 조금씩 실감하게 되었다. 우선 건물들이 굉장히 높고 크다. 인도는 건축 술이 아직 뛰어나지 않고 전기 공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나 빌딩 같은 건물들이 별로 없다. 작은 도시는 물론이고 인도의 수도라는 델리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전기 공급이 안되면 우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잘 이용할 수 없고 고층까지 물을 끌어올릴 수도 없다. 그런데 아마다바드에는 고층 건물이 꽤 많았다. 우리 호텔 주변에는 Apna bazar라는 큰 상가 겸 회사도 있었고, 오리사 부바네스와르에서는 건물들이 워낙 작아서 일층에만 들어가도 그 건물이 세워진 목적 등을 웬만하면 알 수 있었는데 아마다바드에서는 거의 그럴 수가 없었다.
- (2) 또한 교통의 허브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마치 서울에 온 것처럼 거대한 도로들이 정말 잘 닦여 있었다. 인도 교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오토릭샤도 많았지만 그보다 택시나 승용차들이 더 많았다. 그러나 예비조사 중에 쓰여져 있던, 10분마다 출발한다는 바로다 행 버스는 하루에 2~3번 있는 정도였다. 바로다를 가기 전에 미리 조사하지 않았더라면 시간을 많이 낭비했을 것이다.
- (3) 확실히 사바르마티 강이 이 도시의 중심 지표이다. 강을 중심으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뉘는데 우리는 구시가지에 머물렀었다. 구시가지는 말 그대로 조금 오래된 도시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 건물들이나 호텔들도 중저 수준이었으나 강을 건너 신시가지로 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우선 가장 놀랐던 것은 City Gold 라는 이름의 멀티플렉스 빌딩이었다. 새로 생긴 지 얼마 안되는 건물이고, 이 건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제 백화점이 들어왔다고 한다.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라고 이야기 하지만 남쪽의 뭍베이보다는 그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던 아마다바드에 이제 서양 문명을 포함한 현대 문명이 물밀 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건물 안에는 영화관이 있고, 일층에는 맥도날드, 이층에는 패스트푸드 점, 삼층에는 오락실을 비롯한 볼링장과 당구장이 있고, 꼭대기에는 고급 레스토랑이 있다. 인도에서 처음 느껴 본 현대 문명이었다. 잠시 서울에 있는 듯한 착각을 했었다.

- (4) 아마다바드의 날씨는 매우 습하고 덥다. 극단적으로 덥거나 춥지 않다고 했던 말은 어느 정도는 맞지만, 한국에서의 날씨보다 햇볕이 더 따갑고 습도가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다. 아마다바드에 있을 때 처음으로 에어컨이 나오는 호텔방을 잡았는데 그만큼 밤에도 더웠었다.
- (5) 인도에 처음 가서 제일 힘들었던 건 그들이 우리를 너무나 뚫어지게 바라보는 부담스러운 시선이었다. 워낙 외국인이 많은 캘커타나 델리에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신기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반대로 외국인이 거의 없는 오리사 주에서 우리는 거의 동물원의 원숭이였다. 그러나 아마다바드는 별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외국인이 많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계속 TV나 영화등을 통해 외국인들을 편견 없이 바라볼 여유가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다. 바르다에서는 우리가 이들을 신기하게 쳐다보기도 할 정도로 그들은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
- (6) 외국인에서 이 사람들이 구자라티를 쓰는지 힌디를 쓰는 지 잘 모른다. 우리에게 다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일 뿐이다. 인도 사람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힌디를 구사할 줄 안다.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곳이나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예를 들어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 상점 등)은 영어까지 구사할 줄 안다. 아마다바드 준비조사 때에 이 곳에 가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직접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부딪혀 보니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구시가지에서 오토릭샤를 타고 신시가지까지 가는데 말이 안통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원래 릭샤꾼들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우리가 길에서 신시가지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구사하지 못했었다.
- (7) 구자라트 주에 대한 준비조사를 할 때에 이 주에서 가장 큰 이슈는 오래전부터 계속 되어온 힌두와 이슬람의 갈등이었다. 이 곳은 확실히 이슬람의 비율이 다른 곳보다 높다. 우리가 들렀던 다른 곳에서는 힌두교의 템플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구자라트, 아마다바드에는 힌두교의 템플도 많지만 이슬람교의 모스크도 굉장히 많았다. 구자라트 주에서 가장 큰 모스크가 이 곳 아마다바드에 있다는 것, 또한 무슬림들이 사는 거주 지역이 따로 있다는 것 등은 이슬람교의 영향 세력권이 다른 주보다 크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3. Research about Ahmadabad City

(1) 7월 18일

CNI(Church of North India) Church

- 1) 인도에 와서 처음으로 주일예배를 지역교회에서 드렸다. 영어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구자라티로 예배하는 CNI Church 10시예배를 모두 함께 드렸다. 교회가 상당히 크고 교인들도 200명은 충분히 되어 보인다. 교회의 전체적인 느낌은 카톨릭이다. 천장이 매우 높은 교회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여러군데 있고 여자들은 머리에 천을 쓰고 있다. 이들의 악기로 찬양을 한다. 북소리도 나고 오르간 소리도 난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아비멜렉’ 이란 단어와 ‘아멘’ 이란 단어가 귀에 들어왔다. 예배 후 목사님과 이 지역의 기독교 마인드와 정보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 2) 아마다바드 시에 7만명의 크리스천이 있다.
인도에서 크리스천의 비율을 셉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힌두교 자체가 모든 종교, 모든 신을 인정해 버리는 회색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명목상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사실은 여러 신 중의 하나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 따라서 여기서 말한 7만명이라는 숫자가 통계상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추측이다.
- 3) 일반적으로 크리스천들은 직업을 얻기가 힘든 형편이고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봉급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한다. 반면 어느정도의 카스트와 힌두교를 종교로 하는 사람들은 직업을 얻기가 쉽다. 우리 나라에 학연과 지연이 존재한다면 이들 안에는 힌두교라는 종교로 묶인 일종의 연결고리가 있다. 기독교인은 우선 이 연결고리 안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런 차별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일종의 핍박이 되고 있는 것이다.
- 4) 크리스천들은 주로 오피서, 교사, 간호사, 의사, 정비공 등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크리스천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에 서 있다.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의 입장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정부의 고위 관리직, 장관급 중에 크리스천들이 많다. 소냐간디가 그 대표적 예이다.

우리가 방문했던 교회의 분위기 상 정말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수용하는 곳은 아니었다. 인도 안에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존재한다. 그런데 크리스천 안에서도 그런 카스트 제도가 존재한다고 한다. 카스트에 따라 그들이 나갈 수 있는 교회도 달라진다. 우리가 조사했던 교회는 중산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보였고 크리스천들이 의료계나 교육계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는 말은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 진 의논 같아 보이기도 한다.

- 5) 인도에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오리사나 구자라트 주 같은 경우는 그 주정부에서 복음 전파를 막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 세례를 할 때는 구자라트 지역을 넘어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한다.

처음에 인도는 복음의 불모지라고 생각했었다. 더군다나 기독교 박해주인 구자라트에 교회가 시내 한복판에 있으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 실제로 구자라트 주의 법에는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교회 안에서만 모든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고 실제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구자라트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인도는 도마가 순교한 곳이다. 이미 오래 전의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복음이 전해졌던 곳이나 아직까지도 복음의 열매가 크지 않은 나라이다. 그러나 복음의 열매가 크지 않을 뿐이지 없지는 않다는 걸 우리는 새삼 느꼈다. 인도의 크리스천은 많은 사람들이 대를 물려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썸바푸르에서 만났던 라주 선교사님도 3대째 신앙생활을 해 오고 있다고 했다. 인도는 복음의 불모지가 아니다. 이미 많은 씨앗들이 뿌려졌고, 이제는 그 씨앗들이 풀게 자라나 인도를 주님의 땅으로 뒤덮을 것이다.

- 6) 침례교는 구자라트 주에 없다. 하지만 윌리엄 케리의 영향으로 북동쪽 미조람, 웨스트 벵갈, 나갈랜드 지역에 많다.
- 7) 인도 안의 많은 기독교 종파들이 경쟁하고 다투어서 통합한 두개의 교단이 있다. 하나가 CNI (Church of north India) Church 이고 다른 하나가 CSI (church of south India) Church 이다.
- 8) 힌두가 메이저라면 무슬림은 마이너이고 기독교는 이들보다도 한참 더 마이너이다. 크리스천과 무슬림 사이에는 별로 갈등이 없는 반면, 힌두와 무슬림 사이에는 정치적인 이유를 비롯하여 굉장한 갈등들이 있다. 중동지역

이 무슬림과 크리스천 사이의 갈등으로 황폐화 된 것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재밌는 발견이었다.

- 9) 구자라트 주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다. 지진이 났을 때 교회에서 힌두 마을을 지원하고 구호활동을 했다고 한다.
- 10) 구자라트에는 다른 주보다 훨씬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차를 고치거나 오토바이를 고치는 일을 하고, 옷을 만드는 일을 한다. 특히 이들은 문자해독률이 낮다.
- 11) 구자라트주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자이나교와 시크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인도 전체에 걸쳐 1%의 자이나교도들이 있는데 그 중 50%가 이 구자라트에 살고 있다. 자이나교도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많으며 자이나교도가 워낙 많아 길거리에서 이들이 하는 음식점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고 한다.

(2) 7월 19일

1) 무슬림지역 (수진 간사님, 란) – 샤푸르(Shahpur)

- 우리는 무슬림들이 모여 산다는 거주지역, 샤푸르로 갔다. 작은 지역인 줄 알았는데 전방 10Km정도가 모두 샤푸르 지역이라고 한다. 무슬림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사실 무슬림만 사는 곳은 아니었다. 힌두와 이슬람의 비율이 대충 40:60 정도라고 한다. 아주아주 복잡한 거리가 눈에 들어온다. 큰 거리의 양쪽에는 상점들이 즐비한데 거의 다 옷을 파는 상점들이다. 무슬림들이 옷가게와 자동차를 수리하는 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이 곳에 오니 실감할 수 있었다. 길 모퉁이에는 양고기를 잘라서 파는 곳도 보인다. 남자들은 수염을 거의 대부분 기르고 있고 머리에는 흰색 빵모자를 쓰고 다닌다. 여자들은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검은색 차도르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휘감고 다닌다. 약간 무서운 생각도 든다.

무슬림들이 왜 수염을 기르고 다니는 지 잘 몰랐었다. 나중에 김바울 선교사님에게 들은 것에 의하면 무슬림은 성인이 되었다는 표시가 수염을 기르는 것이라고 한다. 수염이 없으면 성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관습이 있다고 한다.

- 잠빠왈리 모스크(마지드)
400년된 모스크였다. 이슬람의 모스크는 힌두의 템플보다 확실히 정돈된 느낌이 든다. 이 모스크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이 모스크를 세운 4명의 무덤이었다. 설립자는 나쉬르딘 바바라고 했다. 이 무덤은 우리

나라처럼 봉분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관을 비단 천 같은 것으로 덮어 두었고 꽃잎들이 주변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을 성자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숭배하는 것 같았다. 이 곳을 설립한 사람과 그 가족 4명이 이보다 더 큰 모스크를 샤푸르 안에 세웠다고 한다. 이 곳에 있는 모스크는 대부분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다.

- 빠타르발리 모스크(마지드)

샤푸르 안에서 꽤 큰 모스크라고 한 빠타르발리 모스크는 982년이나 된, 돌로 만든 모스크였다. 모스크의 조각이 매우 섬세하고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존이 잘 되어있었다. 이슬람에는 하루 5번의 기도시간이 있는데 5:30, 13:45, 17:45, 19:32, 21:00 이렇게 다섯번이다. 기도 시간에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스크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한다. 금요일이 일주일 중 가장 성스럽게 지키는 날인데 이 날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한다. 이 곳의 무슬림들은 옷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주로 아이들의 옷을 많이 만든다고 했다.

- 잠시 건물 안에 있는 병원에 들렀다. 알아보니 병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픈 사람들을 처방하여 약을 무료로 나누어주는 곳이었다.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 하려고 했으나 환자들이 계속 줄을 서 있는 상태여서 대화를 잘 할수 없었다. 환자들의 대부분은 말라리아나 결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었다.

- 아마다바드 시에 대해 더 알고 싶고, 샤푸르에 대해 알고 싶어서 가까운 학교를 찾아가서 교사를 만났다. 아마다바드의 85%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고 문자 해독률도 높은 편이라 했다. 영어는 4학년 때부터 배우며 이 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은 구자라트 대학이라고 했다. 매우 많은 학교에 도서관이 없고 컴퓨터 시설을 갖춘 전산실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했다. 무슬림이 사는 지역이니 만큼 무슬림에 포커스를 맞추어 질문을 했었는데 이 학교에서는 무슬림과 힌두교 아이들이 같은 교육을 받고 있고 보통 무슬림들이 많이 쓰는 우르드어 보다 이 곳 무슬림들은 힌디와 구자라티를 많이 쓰고 있다고 했다. 힌두교와 이슬람의 분쟁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보았더니 지금은 갈등이 그리 심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건 단순히 정치적이고 국지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의회당이 집권하는 것에 대해 호의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경제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 무슬림 지역 (수진 간사님, 란) – 샤후람 로자(Shahalam Roja)

- 구자라트에서 제일 큰 모스크라는 샤후람 로자를 오후시간에 방문했다.

사실 제일 큰 규모인지 뭔지 모르고 다만 무슬림 지역이라는 것만 듣고 갔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이 곳은 무슬림만 사는 특별한 거주지역이었고 모스크의 규모도 정말 대단했다. 우리가 있던 시내에선 조금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처음엔 Shah alam roza 모스크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게이트도 정말 화려하고 크다. 역시 신은 벗어나야 했다. 들어섰는데 그 규모에 정말 입이 떡 벌어진다. 모스크를 비롯해 5개에서 6개나 되는 건물들이 곳곳에 있고 모스크 앞의 광장도 정말 크다. 500년전에 세워진 모스크라고 한다.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으나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 몸을 씻고 자신을 성스럽게 한다는 곳에도 가 보았고, 기도하는 곳에도 가 보았고, 아침 나절에 보았던 비단 천이 덮인 무덤들도 보았다. 북소리와 노래소리가 들려서 가 보았더니 병을 고치는 의식을 진행중이었다. 그런데 힌두와 이슬람이 섞인 것과 같은 모습들도 보았는데 그 중 하나가 힌두 템플에서 보았던 것처럼 조그만 그릇에 향을 피우는 것들이었다.

- 모스크를 나와 무슬림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시도했다. 시외, 시내, 국내 전화를 걸어주는 상점이 있는데 그 상점 주인 아저씨와 인터뷰를 오랜 시간동안 할 수 있었다. 이 분 또한 무슬림이고 이 지역에 있는 전부가 무슬림이라고 알려 주셨다. 사실상 구자라트에서 제일 큰 무슬림 지역은 주하푸라(Juhapura) 라고 한다. 지도를 가지고 갔는데 여러 곳을 무슬림 지역이라고 짚어 주었다. 꽤 많은 곳에 무슬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슬림들은 굉장히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옷 만드는 것, 오토바이를 고치는 일에 종사하고 있고 교육을 받고 있긴 하나 무슬림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다고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주변에는 고등학교가 한 개 있고, 무슬림들만 다니는 학교도 한 개 있다고 했다. 구자라트에 이번에 집권하는 의회당에 대해 무슬림들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BJP당이 집권 할 때는 무슬림들에게 많은 불이익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힌두와의 갈등에 대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었는데 인도에 와서 처음으로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인도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No Problem' 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쓴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열악한 상황이고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도 이 사람들은 문제가 별로 없다고 이야기 한다. 그것이 외국인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자신들의 치부인지, 아니면 정말로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인터뷰는 참 값진 것이었다.
- 인터뷰 후 마을을 한번 쪽 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아담한 느

낌이었다.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경적 소리도 소음도 매우 적었다. 건축 양식이 보통 시내의 인도 집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는데 하얀색의 느낌이 많고 곡선이 매우 아름다웠으며 발코니의 난간들은 정말 예쁘게 장식해 놓았다. 차고에는 좋은 차들이 많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여유로운 동네 같아 보였다. 이 곳이 워낙 오래되고 큰 모스크로 유명하다 보니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한다. 그런데 이 지역엔 그들을 수용할 호텔도 없고, 화장실도 없다.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다.

3) 힌두 지역 (요셉, 경하)

- 무슬림 사원을 한번도 보지 못해서 구시가지에 있는 자마마지드 사원을 들렀다. 지금까지 보던 힌두템플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조용하고 깨끗한 분위기였다.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보지는 못했다.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을 원래는 만져보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는 관계로 그들이 말하는 그 신성한 코란을 직접 만져볼 수 있었다. 내용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진리 아닌 것에 얽매어 있는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자마마지드 사원을 떠나 신 시가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힌두 지역을 리서치하는 역할을 담당했지만 사실 인도에서 힌두 지역을 조사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 하는 것은 정말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일이다. 인도는 힌두의 나라이고 무슬림과 기독교를 빼면 거의 대부분이 힌두인 상황에서 감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지역을 가야 힌두에 대해 더 잘 알수 있느냐고 물어보기로 했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보았던 사람이 우연하게도 기독교 인이어서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분이 몇몇 학교와 힌두템플을 소개해 주셨다. 학교는 너무 거리가 먼 관계로 우리는 힌두템플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힌두템플을 찾아가 수도승을 만나려고 했으나 템플 관리인 같아 보이는 사람이 지금은 낮잠 자는 시간이니 4시 쯤에 다시 오라고 했다. 그냥 가기는 좀 아까워서 이 사람과 대화를 시도했다. 우리가 이 사람에게 힌두가 무엇이냐고 추상적인 질문을 처음 던졌더니 힌두는 자연, 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 했다. 무언가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듯 했지만 사실은 자신도 잘 정의 내리지 못하는 자신들의 종교를 어리석게 믿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과연 힌두가 종교일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와 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할텐데 이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소개하려 하지도 않고 다만 질문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만을 보였다. 이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힌두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더니 책을 하나 소개시켜 주었는데 책 제목은 ‘All about Hinduism’ (written by Swami Sivananda) 이었다. 힌두이즘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는 유명한 책이라고 했다. 그래서 주변에 도서관을 찾았는데 소개 받은 책은 찾을 수 없었지만 힌두교에 대한 다른 책들을 읽어볼 수 있었다. 힌두에 대한 책들은 매우 많았지만 기독교 서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 힌두교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들을 알려면 브라만 계층을 만나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Brahman Mitra Mandal’ 지역이었다. 동네 자체가 굉장히 깨끗했고 고급빌라, 고급 승용차들이 굉장히 많았다. 우리는 이 곳이 브라만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붙여 보았다. 이 지역이 브라만들이 모여 사는 곳이냐고 물어 보았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이 지역의 이름이 브라만으로 시작하게 된 이유가 50년 전에는 이 지역에 브라만 살았기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계층에 상관 없이 모여 살고 있다고 했다. 이 지역이 부유하게 보이는 이유는 사업가들이 많기 때문이었다. 질문을 하던 중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간디 아쉬람을 추천해 주어서 간디 아쉬람을 가보게 되었다.
- 브라만 미트라 간다르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간디 아쉬람이 있었다. 구자라트 아마다바드는 지역적으로 민족주의 정신이 강한 곳이다. 간디의 출생지이기도 하고 간디가 영국에 대항해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전개해했던 곳이기도 하다. 구자라트 대학의 설립 이념도 민족주의 정신을 토대로 지식인을 키우는 것이라고 한다. 솔직히 간디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지 못했다. 다만 윤리 책에 잠시 나온 인도의 유명한 인물이라는 것 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간디는 참으로 중요한 사람이었다. 이런 중요한 간디 아쉬람이 우리의 눈 앞에서 폐장을 했다. 조금 상심한 마음으로 서 있는데 고등학교 영어선생님이란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었다. 힌두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명쾌한 대답을 듣진 못했다. 우리는 바탕색으로서의 힌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무슬림이나 크리스천은 힌두의 바탕색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바탕색과 다르게 튀는 색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때문에 자신의 색을 분명하게 이야기 할 수 있었다. 무슬림과 기독교 모두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어쩌면 더 분명히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힌두교인들은 다 비슷하게도 그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굉장히 분명하지 않은 흐지부지한 태도들. 3억 3천개의 어마어마한 신들

이 그런 그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3) 7월 20일

1) YWAM 선교사님과의 만남 (전체) – 마니나갈 지역

- 우리가 들렀던 인도 다른 지역에서는 한국에 있을 때 컨택을 한, 그 지역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정보를 얻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는데 구자라트 주는 정말 맨 땅에 헤딩 하는 식으로 아무 정보 없이 오로지 리서치만을 위해서 밟은 땅이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막막했었다. 오리사의 부바네스와르 처럼 하루만 돌아도 다 알 수 있는 좁은 지역도 아니었고 우리의 비전문적인 리서치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제 갔던 C.N.I 목사님에게 이 지역 선교사님과 연락할 수 있냐고 막연하게 물어보았을 때 아마다바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YWAM 선교사님과 연락하게 도와주셨다. 그 분과 직접 통화를 하는데 너무나 놀랐다. 한국분이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깊이 느꼈다. 오전에 아마다바드, 마니나갈 지역으로 YWAM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다. 오랜만에 한국인을 만나서 우리 나라 말로 쉽게 대화할 수 있다는 기대, 구자라트와 아마다바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들로 전날부터 가슴이 벅차 있었다. 마니나갈 기차역 앞에서 선교사님을 만났다. 참 씩씩해 보이는 여 선교사님이셨다. 선교사님의 센터까지 릅샤를 타고 갈지, 걸어갈 건지 정하라고 하셨다. 굉장히 서두르시는 모습을 보았다. 얼마나 걸어야 되냐고 여쭙어봤는데 바로 기차 역 뒤라고 하셨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그만한 거리를 왜 릅샤를 타고 가야 하며 왜 그렇게 서두르시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선교사님 센터에서 여러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구자라트에서 정말 느끼지 못했던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오는 핍박, 두려움들. 우리가 아마다바드에 계속 있으면서 조사했던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분과의 만남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 선교사님은 아마다바드, 마니나갈 지역에서 King's kids 사역을 하고 계셨다. 잘 알려지지 않은 땅 인도에서, 그것도 기독교 박해 주인 구자라트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적지 않게 놀랐고 또 그로 인해 감사했다. 센터에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고 있는 한국인 단기 선교사님들도 계셨고, 인도 현지인 학생들도 있었다. 모두 YWAM 에서 훈련 받고 이 곳에서 사역을 돕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처음에는 인도 현지인들과 인사를 하고 대화를 했어야 하기 때문에 영어로 이야기를 진행해야

했다. 나중에 가서는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인도인 학생들에게 영어로 그 말들을 전했고 그들의 견해와 기도 제목들도 들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 마니나갈은 구자라트 안에서도 크리스천들이 모여 사는 거주지였다. 교회도 많았고 크리스천 공동체도 많았다. 그러나 크리스천만 사는 곳은 아니었다. 가치역을 건너서는 힌두가 살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이슬람도 살고 있다. 한마디로 갈등의 종교들이 집합해 있는 화약고 같은 곳이기도 했다. 우리는 이런 박해 지역 안에서 어떻게 이들이 사역 하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 왔는지가 궁금했다. 구자라트 주에서는 크리스천으로의 개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힌두나 무슬림 등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전도 하는 것이 안되는 상황이란단다. 구자라트에 2001년도 큰 지진이 난 이후로 핍박이 정말 심했는데 기독교 단체가 구호단체의 이름으로 많이 들어왔었다. 그 이후로, 마을이 변화되고 마을의 사람들이 크리스천으로 집단 개종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인도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아 닫혀있던 구자라트 주를 하나님께서 여신 것이었다. 지진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지진이 일어났던 그 날이 바로 힌두교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계획했던 그 날이었다고 한다. 그 시간, 기도하고 있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힌두 템플들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하나님이 거짓 신에 대한 진노와 그 땅의 교회들을 향한 은혜를 모두 보여주신 사건이었다. 여기서는 아이들을 콜링하지 않는 상황이다. 집을 하나 빌려서 Kid's club 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선교사님이 먼저 시작한 사역이 아니라 아이들이 단체를 만들고 싶어서 구성했고, 지도해 줄 누군가가 필요해서 선교사님이 손을 뻗친 것 뿐이라고 이야기 해 주셨다. 직접 나서서 콜링을 할 수 없는 이유는 힌두의 영향력 때문이다. 우리가 구자라트 주에 있으면서도 크리스천들에 대한 핍박을 몸으로 실감할 수 없었던 건 우리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우리와는 상황이 틀렸다. 그래서 단기 사역 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하였고, 언제든 상황이 달라져 생존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전도를 할 수도 없고 이 지역의 크리스천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열려 있지 않다고 이야기 하셨다.
- 과연 어떤 식으로 핍박을 받을까 하는 질문에는 돌을 던지는 등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 은근히 많다고 하셨다. 더군다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눈에 잘 띄어 문제가 많았고 협박편지도 많이 온다고 했다. 특히 남 구자라트의 교회

들은 많은 핍박이 있는 상태다. 그 지역의 교회들이 불태워지고 워낙 핍박이 심해서 목사님이 길거리를 혼자서 걸어나니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 구자라트는 힌두와 이슬람의 갈등이 대단하다. 마니나갈 지역도 그렇지만 가장 갈등이 심한 지역은 베람뿌라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지난 주에도 길거리에서 힌두들이 무슬림 가족을 잡아서 남자는 폭행하고, 여자는 성폭행 하고, 아이는 던져서 죽게 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 두 종교간에 언제 폭동이 일어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크리스천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가 궁금했다. 힌두와 무슬림 사이의 갈등이 있을 때 크리스천들의 입장은 참 모호하다고 한다. 두 쪽 중에 어떤 편도 들 수 없지만 힌두의 입장은 기독교에 대해서도 완강한 입장이다. 이슬람 다음의 이들의 목표는 기독교 라고 말한다. 같은 마이너의 입장에서 무슬림과 잘 지내는 크리스천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무슬림들을 무시하는 크리스천들도 있다고 한다.
- 구자라트에는 복음이 1830년에 들어왔다. 구자라트에는 0.5%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아마다바드 지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 특히 구자라트 주의 기독교인들은 같은 거주 지역 안에 밀집해서 살고 있다. 워낙 역사적으로 분쟁이 가득한 지역이라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이 그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 분쟁이 일어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워낙 분쟁이 많고 폭동도 곳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들의 입장도 분분하다. 그냥 안전하게 우리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자는 입장도 있는 반면, 감옥에 가더라도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자는 입장도 있다. 교회들 안에서도 연합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 구자라트 크리스천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들은 성경 그 자체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여성들이 교회에서 두건을 쓰고 있는 것이라든지, 여성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축소시키는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크리스천들은 힌두영화를 보는 것을 죄로 치부하고 있으며 정말 전통적인 교회는 청바지를 입는 것조차도 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보기에 답답하고 짝 막혀 보인다. 더군다나 이들을 곁에서 바라보는 힌두나 이슬람들은 그럼 편견들이 훨씬 더 심하다고 한다. 대체 크리스천이 되면 인생의 어떤 즐거움이 있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을 비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회색의 힌두 지역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들의 강력한 자기 방어적 신앙은 이들의 환경적 조건에서 파생된, 살아가는 방식으로의 신앙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 크리스천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많다.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는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데, 가끔 술을 파는 상점들도 있다고 한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며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가정이 크리스천 커뮤니티 안에 많은데 가정의 명예 때문에 이런 불행한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구자라트를 4개의 큰 지역으로 나누는데 수라트지역(가장 남쪽)에 가장 많은 기독교 사역이 집중되어 있고, 많은 크리스천 단체들이 있다. 특히 이 지역은 교통과 상업의 요지인 뭍바이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기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다. 미전도 종족은 구자라트의 왼쪽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커취 지역이라고 한다. 이 지역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힌두가 강한 지역이라 기독교의 핍박도 많다.
- 구자라트 주는 간디가 태어나고 비폭력 독립 운동을 펼쳤던 곳으로 사람들 마음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지진이 일어나고 종교적인 분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많이 황폐해진 모습들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선교사님들 내에서도 구자라트는 도전하기 힘들어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
- 구자라트 안에서는 특별히 교회끼리 연합이 없었다. 그러나 1,2년전부터 선교단체와 교회가 연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1년에 2~3번 정도 선교단체가 모이는 모임들이 있는데 교회가 참여하기 시작했다.
- 인도의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열리면서 아마다바드 c.g road 에 맥도널드 , 백화점등 웨스턴 문화가 들어 오고 있다. 싱가포르 에어라인도 싱가포르와 아마다바드를 잇는 라인을 열었다. 인도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 자신들의 사리와 음식을 보수하는 사람들인데 젊은이들은 자신들도 힌두이지만 굉장히 오픈되어 있다. 새로운 세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구자라트를 세상앞에 드러내고 계시다. 전 세계사람들이 오리사에서 순교자가 생겼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구자라트도 열리기 시작했다. 전 세계 크리스천들의 눈이 구자라트에 집중되고 있다.

2) NID(National Institution Design) (요셉, 란)

- 아마다바드에 있는 유명한 교육기관이었다. 대학은 아니었지만 정부에서 지원 받는 디자인 전문 교육기관으로 학위도 수여하고 있었고 졸업후의 과정도 있었다. 워낙 디자인 쪽에는 관심이 없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왔으나 많은 것들을 얻지는 못했다. 우선 들어갈 때 굉장히 까다로웠다. 사무실에 가서 이름과 연락처 등을 남기고 싸인까지 하고 visitor 라

는 이름표를 붙이고 학교를 돌아다녔다. 학교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정말 예뻐다. 오리사에 있을 때도 그 주의 가장 좋은 대학을 가 보았는데 막상 캠퍼스 안은 매우 지저분하고 좋지 않았었다. 근데 이 곳은 정말 대학 캠퍼스 같이 나무도 꽃도 많았고 분수도 있고 곳곳에 녹색의 잔디가 깔려 있었다. 디자인 학교라 그런지 건물들의 외형도 상당히 독특하고 아름다웠으며 학생들도 아주 모던한 스타일의 멋쟁이들이 많았다. 인도 안의 서양을 보는 것 같았다. 입학 관리처에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입학 시험을 치고 들어올 수 있으며 과 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매우 치열할 거 같았다. 아직 외국인 학생은 없다고 했다. 도서관에 들렀는데 정말 너무 너무 좋은 곳이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자유롭게 아무 바닥에나 앉아서 공부할 수 있게 한 카페트 바닥과 시원한 실내, 엄청난 양의 디자인 관련 책들. 정말 공부할 맛이 날 거 같다. 등록금은 일년에 우리 나라 돈으로 200만원이 조금 넘는다.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우리 학교 학생들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마련 된다면 와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3) 크리스천 거주지역 (경하, 지원, 인섭, 수진 간사님) – 마니나갈, 주변 교회

- 이희선 선교사님과 식사를 하고나서 요셉과 란을 뺀 나머지 지체들은 선교사님 센터에 있던 인도인 학생의 집을 방문했다. 이 학생의 아버지께서 이 곳 마니나갈 지역에서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아마다바드의 교회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고 이곳에서 어떤 식으로 사역하시는지 궁금했다. 인도에는 4가지 종류 교계가 있는데 Alliance, Methodist, Salvation Army, Church of North India(C.N.I) 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다. 이 중 Methodist 가 가장 크다고 한다. 목사님들의 경우는 우리 나라와 비슷하게 교단 파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두 가지 종류의 크리스천이 있는데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있는 반면, 미지근한 크리스천들도 상당수라고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인도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는 열정있는 크리스천들을 많이 보았다. 우리가 만났던 분 들중 한명은 인도 곳곳에 있는 텀플들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면서 차를 타고 길거리의 텀플들을 향해 몇일 간을 계속 대적기도를 했다고 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인도가 변화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했다. 인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여자들이 이마에 찍는 빨간 표시 같

은 것이다. 우리가 여기 와서 알게 된 것은 여자들 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이것을 찍는다는 것이다. 이 표시는 시바신의 눈을 의미한다고 한다. 보통 크리스천들은 이 표시를 하지 않지만 카톨릭 신자 중 일부는 이 표시를 한다고 한다.

- 구자라트에서 중요한 인물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 수상인 라린드라 모드를 얘기해 주셨다. 극렬 힌두 신자인 이 사람은 구자라트를 힌두교로 통일 시키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극렬 힌두파는 vishu hindu parishad vhp 과 r.s.s 로 크게 나누는데 힌두당인 BJP당원들은 이 두 단체 중 하나에는 꼭 속해야 한다. 모드가 수상을 맡기 이전 사실은 소냐 간디가 수상으로 당선되었었다. 정치적인 이해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소냐 간디는 수상의 직책을 포기했다. 소냐 간디는 로마 카톨릭 신자인데 힌두가 보기에는 다 같은 기독교 이기 때문에 굉장한 견제가 있다고 한다.
- 구자라트를 복음의 게이트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아직 구자라트는 복음적으로는 굉장히 메마른 지역이라고 했다.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외부문물이 들어오는 큰 통로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매우 불모지의 상태라고 한다. 특히 북 구자라트에는 크리스천들이 없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목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들었던 오리사주도 역시 기독교 박해 지역이었는데 오리사 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오리사는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면서 힌두이즘을 띠고 있는 반면 구자라트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상태에서 힌두이즘을 띠고 있다는 것이 매우 달랐다. 오히려 부유하게, 별 어려움 없이 생활을 풍요롭게 영위하고 있는 구자라트 주에 복음이 들어오기가 더 어려운 형편이라고 이야기한다.

4) 자마마지드 이슬람 사원 (전체)

- 각 조별로 흩어져서 리서치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무슬림의 기도 시간에 다시 같은 장소에 모여서 대적 기도를 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로 했다. 아마다바드에서 유명한 이슬람 사원, 시장을 쪽 따라 걸으면 문이 보이는 그 곳. 자마마지드는 꽤 큰 사원이었다. 남자들은 긴 바지가 아니면 꼭 치마 같은 것을 걸쳐야 한다. 반바지를 입었던 한 형제가 부랴부랴 자마마지드 안에 들어가려고 치마를 입었었다. 나와 요셉형제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사원 안에 들어가 있었다. 온통 대리석으로 깔려 있는 사원 안은 매우 아름다웠다. 조금 있으니까 '알라' 로 시작하는 방송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그 때

다른 팀들이 도착했는데 다짜고짜 위험하다고 빨리 이 곳을 나가자고 한다. 우리는 힌두와 이슬람의 분쟁 상황을 이 곳 아마다바드에 있으면서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엇그제도 이 앞에서 무슬림의 릅샤를 태우고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사원 안으로 들어가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결국 시장 한 가운데 서서 무슬림들이 사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쳐다볼 수 밖에 없었다. 끊어진 다리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들안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